

## 6.3 역대 간사장 회고

### 뜻 깊었던 2017년

2017년 간사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명희준**

제가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에서 처음 간사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2년이었습니다. 당시 권태종 회장님, 박영인 간사장님, 성문희 총무간사님이 학회를 이끄셨고, 저는 국제간사로 참여했습니다. 2002년은 우리 학회의 명칭이 “한국산업미생물학회”에서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The Korean Society for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로 변경되었고, JMB의 IF가 1.338을 기록하여 드디어 1점을 넘었던 시기입니다. 이후 4회의 간사 활동을 추가로 하고 2017년에 간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학회장은 성문희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간사인 김동욱 교수님, 재무간사인 김필 교수님, 수석학술간사인 조유희 교수님을 비롯하여 총 32분의 간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의욕적으로 활동했던 한 해로 기억합니다. 특히 여성 간사가 총 7분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고, 이후 여성 간사의 꾸준한 학회참여의 물꼬를 텃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는 예년과 같이 총 4회의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1월에 용평에서 동계 학술대회가, 6월에 부산에서 정기 국제학술대회가, 8월에 홍천에서 한국생명공학회연합 학술대회가, 11월에 일산에서 한국미생물학회연합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6월 국제학술대회에서는 5분의 PL을 모셨고, 우리 학술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SIMB의 학회장을 모시고 opening lecture를 가졌습니다. 또한 7개의 IS, 19개의 S, 2개의 YS, 5개의 ST, 1개의 WS, 2개의 Forum, 2개의 Luncheon seminar가 진행되어 다양한 주제와 함께 학계의 넓은 관심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이렇듯 수많은 국내/외의 학자와 학생,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2017년도에 학술대회 이외의 기억할 만한 활동으로는 정강(이용현) 기념학술상의 시행과 바이오식의 약소재 학술분과 신설을 들 수 있겠습니다. 후학들을 위한 기금 쾌척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학술분과 신설로 본 학회의 지평을 더욱 넓힐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일은 학회사무실의 확장 이전이었습니다. 1993년부터 사용해오던 과학기술회관 본관 5층의 사무실은 정든 장소였으나, 날로 커가는 학회의 규모를 감당하기에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학회사무실을 확장하고 더하여 회의실을 설치할 필요성에 따라 2017년 9월 28일에 과학기술회관 신관 4층의 현재 사무실로 확장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성문희 회장님과 기금사유를 허락해 주신 이사회의 도움 덕분입니다.

2017년도에 학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은 학회 구성원 모두의 공로입니다.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회장님과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간사 선생님들, 사무국 직원 선생님들, 수준 높은 학술 활동을 펼쳐주신 PI 선생님들, 후원해 주신 여러 기업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던 미래의 희망인 학생회원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